



연아, 아름다운 마침표.



쇼트프로그램 구성 및 점수

연기순서	트리플 러츠	트리플 플립	플라이닝 카멜 스피ن	더블 악셀	레이백 스피ن	스텝 시퀀스	체인지풋 콤비네이션 스피ن	총점
기본점수	10.10	5.30	3.20	3.63	2.40	3.30	3.50	31.43
수행점수	1.50	1.10	0.93	1.07	0.79	1.14	1.07	
기술점수	11.60	6.40	4.13	4.70	3.19	4.44	4.57	39.03
예술점수	스케이팅 기술 9.04	동작사이연결 8.61	연기력 9.11	인무 8.89	곡 해석 9.21			35.89



은반의 최고 스타로 군림하며 세계인을 전율케 한 '피겨 여왕' 김연아(24)의 환상적인 무대를 더 이상은 보지 못하게 됐다.
 쇼트프로그램에서 74.92점의 시즌 최고기록으로 선두에 나선 김연아는 24명의 출전 선수 중 24번을 뽑아 마지막 조의 마지막 연기자로 나선다.
 '피겨 여왕' 김연아(24)의 '클린' 연기에 외신의 칭찬 세례가 쏟아졌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20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김연아의 경기 후 "김연아는 그의 전성기가 지났다는 주장이 완전히 어리석은 말이라

“완벽하고 우아” 외신들 극찬

는 것을 입증했다"고 칭찬하고 나섰다. 김연아는 이날 기술점수 39.03점과 예술점수 35.89점을 더한 74.92점을 받아 쇼트프로그램을 선두로 마감했다.
 외신은 일제히 김연아가 흠 없는 '명품 연기'를 선보였으며 김연아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김연아가 실수 없이 쇼트 프로그램을 마쳤다"며 "다른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연아의 모든 점프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우아했다"며 "모든 착지도 깃털처럼 가벼웠다"고 찬사를 보냈다. 미국 USA투데이는 "여자 쇼트프로그램에서 빛난 김연아라는 제목으로 김연아의 활약을 소개했다. 이 매체는 "김연아는 점프할 때마다 이 꽃 저 꽃으로 옮겨다니는 벌 같았다"며

김연아의 점프를 칭찬하고 "김연아의 스핀은 화려하고 각도기로 갠 듯 움직임도 정교했다"고 김연아를 치켜세웠다. 이어 "김연아를 가장 특별하게 만들고 보는 이들에게 소름끼치게 한 것은 김연아가 단 순히 스케이팅을 타는 게 아니라 음악을 느끼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올림픽 우승자인 김연아가 놀라운 연기로 모든 관중이 환호성을 내지르게 만들었다"고 썼다. 영국 방송 BBC는 "김연아가 올림픽 2연패를 향해 순항했다"며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고 소개했다. 러시아 통신사인 리아노보스티는 "자신감 넘치는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시작으로 거의 흠 없는 경기를 펼쳤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타국서 겨룬 호랑이와 사자, 비로 승부 못내



김여울 기자
 KIA 전훈캠프 오키나와를 가다

KIA 선수단이 타국에서 반겨준 적을 만났다.
 KIA 타이거즈가 20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 위해 오키나와 온나손 야구마 구장을 찾았다.
 KIA 선수단이 도착하자 삼성 류중일 감독이 먼저 걸음을 해 안방을 방문한 이들을 맞이했다. 양팀 선수들도 오며 가며 안부를 묻고 곳곳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인연이 많은 두 팀이라 이곳저곳이 북적북적했다.
 삼성 선수들은 선동열 감독의 옛 제자들, 올 시즌 다시 삼성으로 돌아간 김광호 코치도 지난 2년 KIA 선수들과 손발을 맞췄던 사이. KIA에서 뛰었던 투수 김희철과 박근홍도 친정팀의 방문이 누구보다 반가웠던 이들이다. 안치홍과 청소년국가대표로 함께 뛰 삼성 유격수 김상수도 절친을 만나기 위해 분주하게 KIA 덕아웃을 오갔다.
 하지만 호랑이와 사자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후 1시 연습경기 시작과 함께 적으로 돌아선 이들은 소나기와 강풍에 3회말 경기가 우천취소되



KIA 전지훈련캠프를 찾은 삼성 선수들과 KIA 선수들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면서 이내 작별을 고했다.
 웃으며 작별을 찾았던 KIA는 임준섭의 난조 속에 무거운 발걸음을 해야 했다.
 신종길-김주찬-이범호-나지완-김주형-안치홍-이대형-백용환-김선빈 등 모처럼 베스트 멤버를 가동하며 전력 테스트를 하려고 했던 KIA는 선발 임준섭의 난조가 아쉬웠다.
 1회말 첫타자 김상수를 몸에 맞는 볼로 내보낸 임준섭은 1사 1·2루에서 최형우와 김태완에게 연속 2

루타를 허용하는 등 1회에만 3점을 내줬다. 3회말에도 선두타자 이승엽에게 중앙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허용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타자들 도 삼성 선발 백정현에게 묶이는 등 쏟아진 비가 반가울 정도로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짧게 올 시즌 첫 만남을 가진 두 팀은 오는 3월8일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재결투한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는 3월29일에도 두 팀이 대구에서 만나 '진짜 승부'를 벌이게 된다. /wool@kwangju.co.kr

SINCE 1989

이태리 가구 전문점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1899-0240 **홍스페이스 가구빌딩**